

#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시

2024. 2. 14.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2장 1~8절**

**다 같이**

-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나눔**

**마리아의 값진 헌신**

**인도자**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하루 전,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한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아주 값진 헌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 받아야 할 만큼 값진 헌신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면에서 그토록 값진 헌신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임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헌신이 그 오빠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 주신 데 따른 감사로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빠를 주께서 살려 주신 사실을 감안 한다면 마리아의 헌신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그토록 칭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은혜일지라도 일일이 기억해 감사할 줄 아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둘째,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값을 삼백 데나리온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이 향유는 노동자가 일년 가까이 먹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셋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매우 보기 드문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같은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위에서 더욱 고결함을 드러냅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천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앞에서 자신이 자처해 종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부녀자들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푸는 일은 결코 없음을 감안 할 때 그녀의 헌신의 도를 더욱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들이 뭐라 비웃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전폭적인 헌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은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겸손의 태도로서 주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나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헌신은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마리아가 받은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그만 것이라도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힘에 지나도록 아낌없이 주께 드립시다. 주님을 섬기되 겸손히 섬깁시다. 마리아의 온전하고도 겸손한 헌신이 주님께 큰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온전하게 헌신할 때 주님께 큰 칭찬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            눌

## 다    같    이

- 1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 2 2024년이 시작된 후 감사한 내용을 5개씩 나누어 주세요.

## 중   보   기   도

## -----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

## 다    같    이

- 1 큰빛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도록
- 2 언제든 주의 전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이루도록
-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4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 5 큰빛은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도록

## 마무리 기도

##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감사함으로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도 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